Monday, May 25, 2020 (2020-21 호)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마이너스 금리 논의 확대 속 일본과 유럽은 미묘한 정책 변화 실험
  - ◇ (초점)-40 조 기간산업기금채 6 월 초 첫 발행..당국 vs 시장 '동상이몽'
  - ◇ (초점)-세계적 관심 속에 열린 전인대, 조심스런 중국..금융시장 리스크 대비할 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 열리는 중국 양회의 하나인 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카를로스 가르시아 롤린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2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37.0	-0.5%	-6.5%	-3.5%
100엔 대비	1,152.4	-0.1%	-7.8%	-4.4%
유로 대비	1,352.1	-1.4%	-4.3%	-1.3%
위안 대비	173.90	-0.2%	-4.7%	-2.4%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코스피	1,970.13	2.2%	-10.4%	7.7%
코스닥	708.58	2.4%	5.8%	-0.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3Y	0.837%	-3.7bp	-52.3bp	-45.7bp
국고채 5Y	1.082%	-3.6bp	-39.8bp	-40.4bp
국고채10Y	1.347%	-3.6bp	-33.6bp	-26.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유가(WTI)	33.25	13.0%	-45.5%	34.5%
금(현물)	1,734.07	-0.4%	14.3%	18.3%
TR상품지수	2,166.80	1.2%	-12.8%	4.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유로	1.0900	0.8%	-2.8%	-2.3%
엔	107.61	-0.5%	0.9%	0.9%
위안	7.1166	-0.3%	-2.2%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4,465.16	3.3%	-14.3%	22.3%
나스닥	9,324.59	3.4%	3.9%	35.2%
S&P500	2,955.45	3.2%	-8.5%	28.9%
MSCI APxJP	462.53	-0.9%	-16.3%	15.8%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미국채 2Y	0.170%	1.9bp	-139.1bp	-93.7bp
미국채 10Y	0.657%	1.3bp	-125.3bp	-78.1bp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한국 5Y	26.5bp	-5.8bp	5.4bp	-17.0bp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중국 5Y	51.8bp	-0.7bp	21.1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5 월 25 일(월)>
-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

<26 일(화)>
- 한은, 5 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기재부, 2020 년 기금평가 결과(10:00)
- 한은, 1/4 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 (12:00)
- 한은, 4 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27 일(수)>
- 한은, 5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한은, 4 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기재부, 코로나 19 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28 일(목)>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회의
- 한은, 수정 경제 전망(13:30)
- 기재부, 6 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 월 발행실적 (17:00)

<29 일(금)>
- 통계청, 4 월 산업활동동향(08: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기재부, 6 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5: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5 월 25 일(월)>
- 미국, 영국 휴장

<26 일(화)>
- 미국, 4 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미국, 3 월 주택가격 (22:00)
- 미국, 3 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2:00)
- 미국, 5 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미국, 4 월 신규주택판매 (23:00)
- 미국, 5 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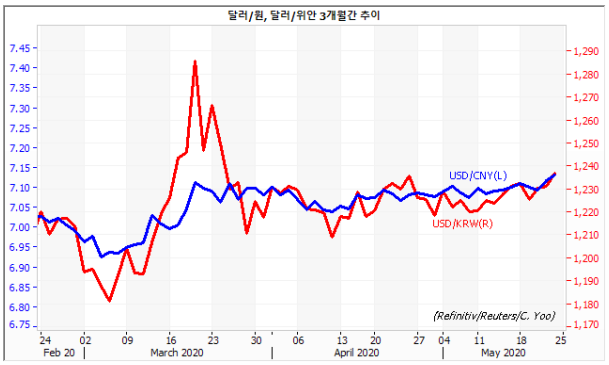
<27 일(수)>
- 중국, 4 월 산업이익 (10:30)
- 미국, 주간 모기지 마켓지수 (20:00)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28 일 03:00)
- 뉴질랜드, 뉴질랜드 연방은행 금융 안정성 보고

<28 일(목)>
- 유로존, 5 월 기업환경지수 (18:00)
- 유로존, 5 월 경기체감지수 (18:00)
- 유로존, 5 월 소비자신뢰지수 (18:00)
- 미국, 4 분기 기업이익 (21:30)
- 미국, 4 월 내구재 주문(21:30)
- 미국, 1 분기 GDP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1:30)

<29 일(금)>
- 미국, 5 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00:00)
- 일본, 5 월 소비자물가지수 (08:30)
- 일본, 4 월 실업률 (08:30)
- 일본, 4 월 산업생산・소매판매 (08:50)
- 유로존, 3 월 총 유동성 증가율 (17:00)
- 유로존, 4 월 가계대출 (17:00)
- 유로존, 5 월 소비자물가지수 (18:00)
- 미국, 4 월 개인소득 (21:30)
- 미국, 4 월 소매재고 (21:30)
- 미국, 4 월 CORE PCE 물가지수 (21:30)
- 미국, 5 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5 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23:00)
- 일본, 4 월 건축주문・주택착공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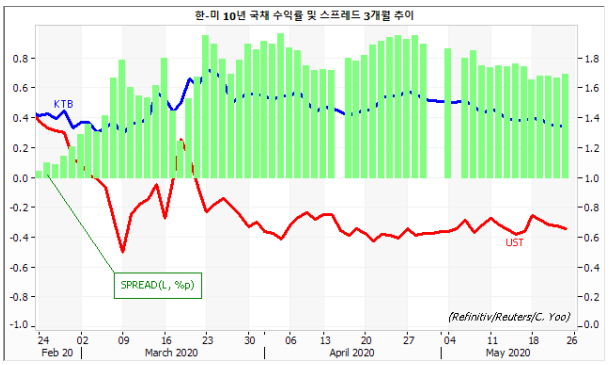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전개 양상을 살피며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25-1250 원이다.
- 코로나 19 사태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중 갈등 확대 국면 속에서 달러/위안(CNH)은 지난 3 월 국제금융시장이 코로나 19 공포에 휩쓸렸던 레벨인 7.16 선으로 올라섰다. 다음 저항선은 작년 미-중 무역 전쟁이 절정을 이뤘던 7.20 선이다.
-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환율은 미-중 헤드라인 리스크에 노출된 채 위안화와의 상관성을 잔뜩 높이며 상승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는 시장 참가자들의 거침없는 롱 포지셔닝은 어려울 수 있지만, 위안화가 약세 행보를 이어간다면 원화는 프락시 통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시장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회의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달러/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 또한 연준 베이지 북과 미국의 1 분기 GDP 수정치 등을 비롯해 국내 4 월 산업생산 결과도 발표된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 속에 강세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는 기대를 넘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28 일 회의가 아니면 다음번 회의에서라도 인하되리라는 믿음이다.
- 게다가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 문제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홍콩 국가안보법을 중국이 자체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에서 불거진 이번 갈등은 단순히 관세나 무역수지를 둘러싼 갈등보다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재료만 있는 건 아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3 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놓고 공급 우려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올해 후반기에 추경을 또 편성하기가 부담스러운 만큼 이번 3 차 추경 규모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 역시 한은만 믿고 가는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 한은 금통위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 발표와 통계청의 4 월 산업활동동향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 북과 미국의 1 분기 GDP 수정치 발표 등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마이너스 금리 논의 확대 속 일본과 유럽은 미묘한 정책 변화 실험

도쿄/프랑프푸르트 (로이터) - 유로존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시중은행들에게 채찍질을 한 끝에 이젠 당근도 함께 주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이 세계 경제를 황폐화시키면서,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은행들이 자금난에 처한 가계 및 기업들과의 신용 거래를 활발히 이어 가길 바라며 은행들에게 보상을 주면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원은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논의로 뒤죽박죽인 상황 속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변화다. 지난 몇 년간 해왔던 것처럼 이들 중앙은행은 유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처벌하기 보다는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또한 금융시장 내에서 미국과 영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이 고려되기 시작했음에도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예금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를 단기간 안에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변화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추가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주최 세미나에서 말했다.

◆ 은행을 위한 완화

지난 3 월 코로나 19 가 유로존을 강타했을 때 유럽중앙은행이 다시 예금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고, 대신 대출 장부를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들에게 대출을 제공했다.

이후 조건은 더 개선되어, 은행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1 년 동안 0.50% 이자를 받게 됐고 대출 장부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1%까지 받게 됐다.

2016 년 당시 유럽중앙은행을 따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은행은 이제 정책 후퇴 선례를 따르고 있다.

지난 달 일본은행은 위기대응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시중은행의 참여가 급증했다.

이는 또한 일본은행이 은행들에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오랜 회의론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0.1%의 이자를 통해 우리는 금융지원을 더 광범위한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은행 대출은 2016 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를 포함하여 2013 년 구로다 총재의 취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증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출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 지급준비금 중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어 있지만, 취약한 지방 은행에서는 이미 줄어든 순익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난 달 일본은행은 순익이 감소하면서 은행들이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잠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마이너스 금리? 관심 없다

대출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많은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19 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에서 대량 실업과 활동 감소에 직면하게 되며 다시 제기되는 문제였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주 웹캐스트에 출연해 코로나 19 와 관련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

한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준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은행들을 경제 지원 노력에 끌어들이려 했다. 은행들의 지불비용을 은행들이 예금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보다 약간 높은 0.25%까지 인하했다. 재할인 창구 조건 변경 역시 은행들이 창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다소 느슨해진 감시를 활용하라는 격려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최근 투자자들은 연준이 그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의 비판적인 입장은 은행을 중시하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다시 언급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진 달러 고유의 역할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부적절하게 만든다.

영란은행도 마이너스 금리를 비판하는데 연준보다는 덜하지만, 도입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지난주 영란은행은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는 "매우 큰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며칠 후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은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약간 더 긴급성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라이 사유리 전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대출을 더 많이 하도록 독려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더 인하해 은행에 피해를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사용하기엔 매우 어려운 도구"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많은 기업의 주요 대출 원천인 일본과 유럽에서는 특히나 은행권의 도움이 중요하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 모두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은행에 대해 담보 요건을 완화했다. 2016 년 마이너스 금리를 단행해 은행들에 충격을 주었던 일본은행은 이제 은행권에 가장 적합한 체계에 대해 은행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유로존 은행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유럽중앙은행은 은행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본 및 유동성 조건을 이용해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 충당금을 충분히 낮게 유지하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피하도록 이끌고 있다.

10 여 년 전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계를 정리하기 위해 세워진 감시단에게 이는 큰 변화였다. 안드레아 엔리아 유럽은행감독청 청장은 "2008 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은행들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점)-40 조 기간산업기금채 6 월 초 첫발행..채권 소화 놓고 당국 vs 시장 '동상이몽'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40 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의 첫 발행이 6 월 초로 예고된 가운데 채권 소화 방식을 놓고 정책당국의 스탠스와 시장의 기대수준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정책당국은 최근 채권시장의 상황과 수급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정 배정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지원 없이도 물량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한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40 조 규모 기간산업기금채 조성에도 채권시장 '차분'..'한은이 있으니까'

김용범 기획재정부 1 차관은 20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 4 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40 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업종으로 차입금 5000 억원, 근로자수 300 인 이상 기업과 일부 예외적 추가대상이다.

예외 기업은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자금 지원은 다음달부터 이뤄지며, 기금 운용기간은 오는 2025 년말까지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다.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직후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의 채권을 선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채권시장에 수급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규모를 조절해 순차 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도 채권시장의 반응은 차분하다. 6 월부터는 3 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금리 하락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시장참가자들은 '모든 게 한은 덕'이라고 설명한다. 한은이 결국 대부분의 물량을 소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A 외은지점 트레이딩헤드는 "다음달 국채발행물량이 3 조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시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현재 기간산업기금채는 가격에 거의 프라이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산업채 물량이 부담되지 않는 건 아닌데 일단 지원산업 항목이 7 개에서 2 개로 줄었고 얼마나 채권을 발행할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결국 매입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 기간산업기금채 발행시 한은 역할 논의 없어..시장 소화 기대

다만 기간산업기금채 발행에 한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당장 이번주 중으로 기금 운용을 위한 사무국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한은간에 채권 매입과 관련한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당국 관계자들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행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기간산업기금채의 소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량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채권을 분할해 발행할 계획"이라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많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실제 자금 지원 소요를 감안해 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간산업기금채 발행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부분과 관련해 한은에 검토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정부보증을 받는 채권이긴 하지만 엄연히 시장에 나오는 채권이기 때문에 시장 소화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기간산업기금채 매입과 관련해 요청이 오거나 협의를 한 적은 없다"며 "한은이 기간산업기금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해당 채권이 국채수요를 구축해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시장금리가 올랐을 때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산업기금채가 5 년 만기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시장이 흔들린다면 같은 만기의 국고채를 일정 부분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일부 시장참가자들 "한은, 적극적 개입 시그널만이라도"

시장에선 향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은이 당장 발행, 유통시장에서 기간산업기금채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불안시 언제든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은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B 시중은행 자금부장은 "한은에 당장 발행시장 개입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안정된 시장의 움직임만 보고 뒤로 물러나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처럼 국채든 기간산업기금채든 커브가 급격히 설 때는 중앙은행이 들어가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 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현재의 시장 가격에는 기본적으로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영돼 있다"며 "회사채나 CP 는 되고 기간산업기금채는 안 된다는 식의 사안별 접근이 아니라 원칙을 정하고 원칙이 달성될 때까지 일관되게 밀고나가는 게 중앙은행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시장이 안정된 걸 보고 이 정도면 안 사도 되겠지 하고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며 "출구전략은 코로나 19 사태가 확실히 정리된 후 고민해야 하며 지금은 시장의 간을 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초점)-세계적 관심 속에 열린 전인대, 조심스런 중국..금융시장 리스크 대비할 때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거칠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전인대를 앞두고 코로나 19 로 인한 충격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부양책을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이 특히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공개된 정부 업무보고나 리커창 총리 발언 내용, 그리고 최근 조성되는 미국과의 갈등 양상 등을 종합해 보면 중국은 코로나 19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 모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거대한 전략을 공개하는 대신 실리를 챙기겠다는 자세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 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경제 및 무역 불확실성과 판데믹 영향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설정은 포기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 정도 나오기도 했었다.

경제 정책에서는 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을 활용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 의 3.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1 조위안어치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인프라 투자를 위한 3 조 7500 억위안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에 대해 국내 시장에서는 예상을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2007 년 이후 처음 발행되는 중앙정부 특별 국채 발행과 지방채 확대 등이 예고된 바 있고, 인민은행 1 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가 시사된 바도 있다"면서 "이미 예견된 정책이 확인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예상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쏠렸다.

리커창 총리는 "홍콩과 마카오 국가 안보를 위해 건전한 법적 체계와 이행 메커니즘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 미-중 충돌과 위안화, 그리고 원화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에 대한 새로운 보안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에 나서는 가운데 홍콩 국가보안법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작년 한 해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원화가 가장 취약한 통화로 꼽혔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위안화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 연구원은 "이날 발언 중에서는 아무래도 홍콩 관련 발언을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다. 미-중 긴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외인 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될 가능성은 적은데다 통화완화 정책까지 고려하면 위안화는 변동성은 관리되겠지만 약세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위안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한편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위안화 약세를 전망하면서 "작년처럼 위안화 약세가 관리된다면 위안화 프락시 역할을 하는 원화에 대한 약세 압력이 오히려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복잡한 방정식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국면이 작년과 미묘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로나 19 확산 책임론을 꺼내 든 미국이 경제, 무역, 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작년처럼 관세 부과와 위안화 약세라는 공식이 다시 강하게 부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 파트장은 "관세 전쟁 재연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로선 이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작년 미국 실업률 3.5% 수준에서도 미국이 소비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주저한 점을 볼 때 관세로 압박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술 패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부과와 이를 헤지하기 위한 위안화 약세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면서 "결국 현재의 미-중 갈등은 장기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만큼 출렁일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리커창 총리는 1 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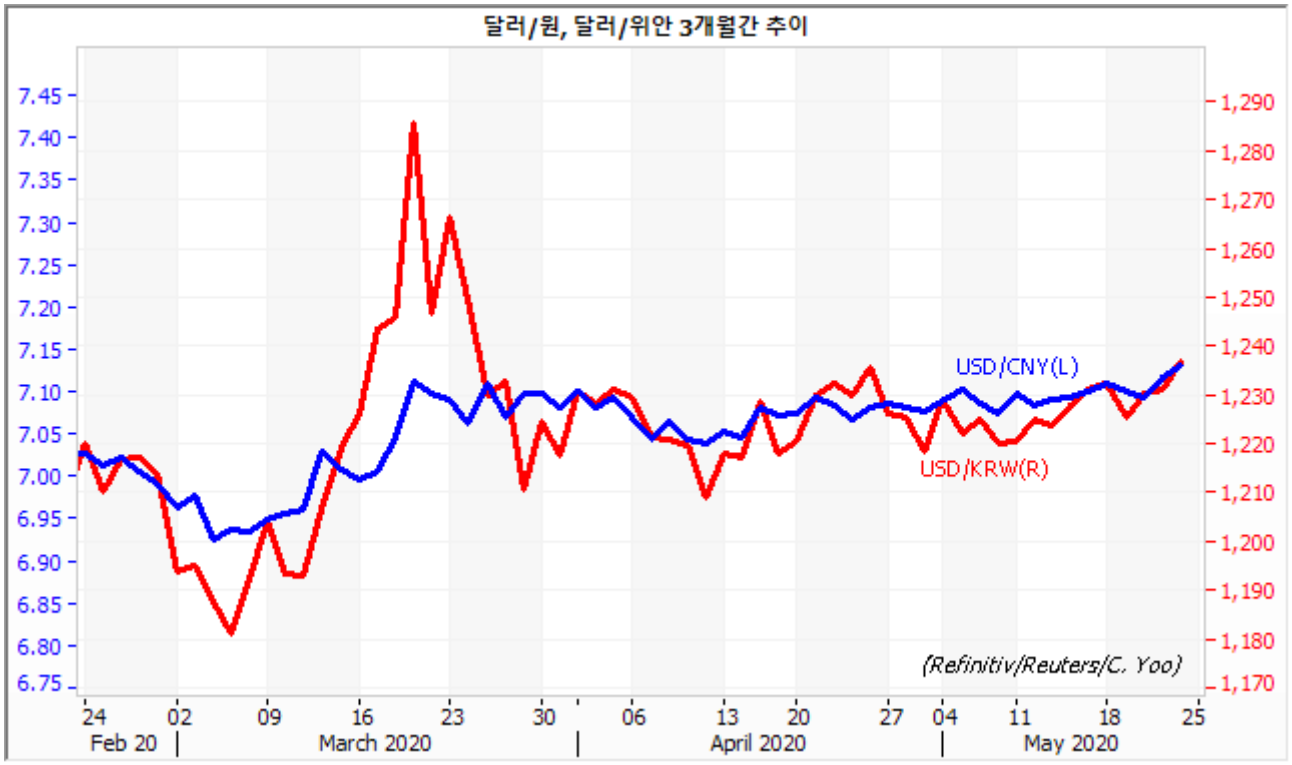
미국의 화웨이 추가 규제안 발표 등 대중국 압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와 더욱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승훈 파트장은 "결국 현 구도에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국이나 일본은 반도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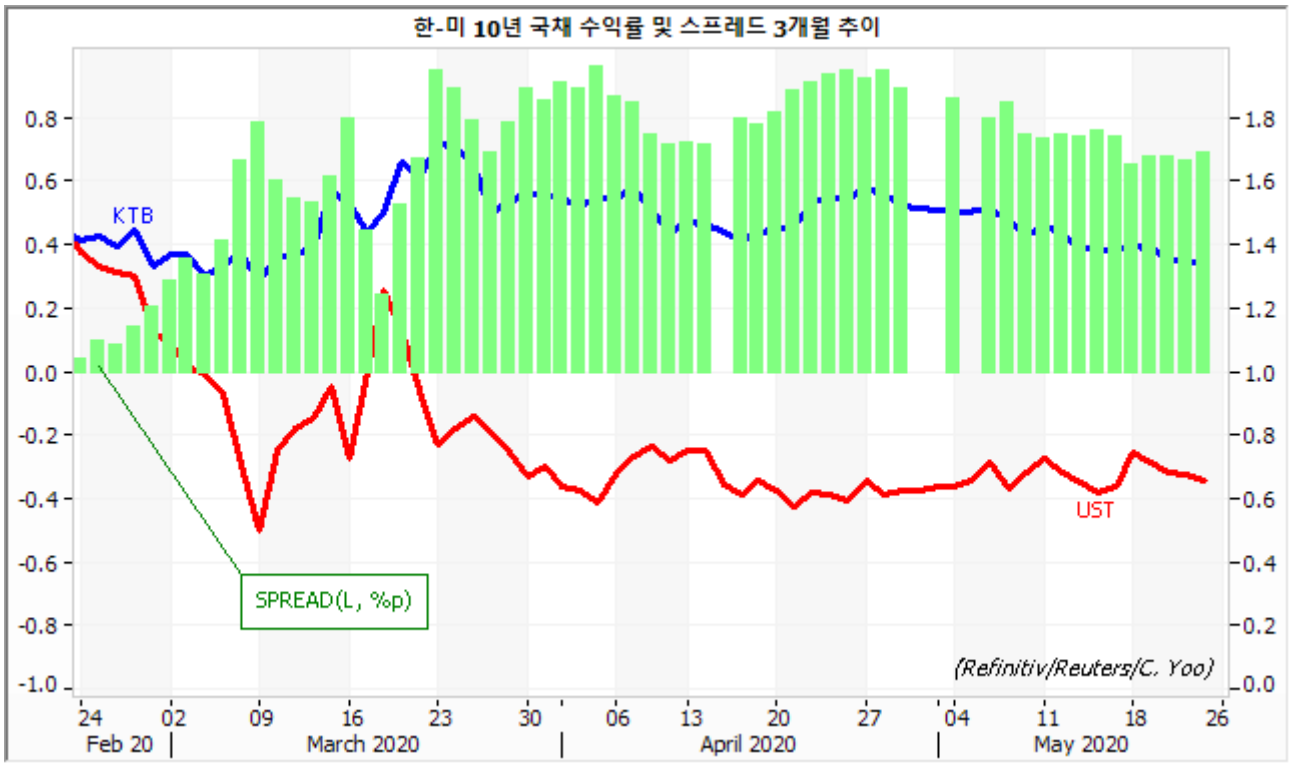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반도체 업종에서 개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중국을 대체하는지, 미-중 갈등에 타격받고 미국에 커플링되는지가 지켜볼 요소"라면서 "아직까지는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